오륙도 칼럼

이명래
부산남구신문 편집위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내 삶 다시 세워 준 베이징의 어머니

벌써 오래 전 일이다. 대학을 마치고 재직하던 수자원공사에서 퇴근 무렵, 여동생의 전화를 받았다. 울먹이면서 동생은 말을 잇지 못했다. 중풍을 앓던 어머니가 갑자기 앞을 못 보고 허공으로 손을 휘젓는다는 것이다. 어머니를 모시고 용하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녔으나 소용이 없었다. 생모의 투병과 임종은 가족은 물론 30대 초반인 나에게 쓰라린 충격을 남겼다.

나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며 숱한 번민 끝에 한의학 유학의 결정을 내렸다. 당시는 국교 수립이 안 되었던 때라, '중공'으로의 유학절차가 까다롭고도 복잡하였다. 1992년 8월, 한중국교 수립이 체결되자 나는 드디어 중국유학 허가증을 거머쥐게 되었다. 늦여름의 매미 울음이 유난히 요란스럽던 날, 나는 두 아이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붉은 간판과 자전거의 물결을 헤치고 천진에 발을 들여놓았다.

만학도로서 엄격한 전공 공부를 따라가기 위해 밥을 먹으면서도 처방약명을 외워야 했다. 기숙사 벽은 온통 한약이름과 침의 혈자리로 도배되었다. 모친의 죽음으로 출발한 유학이었기에 새벽에 일어나 부속병원 환자들의 가래를 일일이 확인해도 마음에 다 차지가 않았다. 한의학에 대한 열정은 그렇게 점점 달아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육아문제를 비롯한 가장의 역할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어깨를 짓눌렀다. 아내도 같이 공부를 했기에 기숙사 복도에서 소리치고 싸우는 아이들을 맡기기 위해 학교 바깥의 탁아소를 찾아갔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하는 탁아소에 세차례 더 찾아간 끝에 월요일에 아이를 맡기고 토요일에 찾아올 수 있게 되었다.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어린 것들을 떼어놓으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결국 우리는 주말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탁아소로 가 창가에 서서 아이들을 몰래 바라보곤 했다. 5세 누나가 3세 동생의 양말을 챙겨주기도 했다. 돌아오는 길, 아내의 자전거는 언제나 눈물로 흔들리고 있었다.

어느 중약학(中藥學) 수업시간이었다. 부자(附子)는 더운약으로 그 독성이 매우 강하여 오용할 경우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실성한 사람처럼 교실을 뛰쳐나갔다. 눈먼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복용한 약에는 부자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한약방에서 일하면서 어깨너머로 약 다루는 것을 배운 사람이 동네를 돌며 약을 지어주었다. 우리 집에도 몇 차례 들러 "부자를 써서 몸을 데워야지"하던 이야기도 함께 떠올랐다. 장기간 병마로 기혈이 소진된 상태에서, 부자의 뜨거움이 어머니의 몸을 지펴 주체 못할 화(火)가 취약한 눈에 타격을 주었다. 부자의 그 잔인한 독성과 약을 다루는 사람의 무지 앞에 떠나간 어머니, 어머니 죽음의 원인을 알아버린 그 날, 50도가 넘는 고량주를 들이부어도 나는 취할 수가 없었다. 황해 건너 먼 한반도 고향 산자락에 한줌 흙이 되어 있는 어머니를 나는 목 놓아 부르고 있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도 그동안의 공부와 고생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중의대(中醫大) 출신자가 한국에서 이미 한의원개원을 하고 있었음에도 한중 수교 후 중의학 학위는 한국 내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동안의 공부가 아까워 중국중의약과학원 석사과정을 지원하였으나, 그토록 어렵게 취득한 학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뼈아픈 현실 앞에 나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 때 나를 일으켜 세운 분이 면접 때 만난 임란(林蘭) 교수님이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공직을 그만두고, 처자식을 데리고 유학을 왔다는 점에서 교수님은 나에게 깊은 관심과 놀라움을 보였다. 그 때 들려준 '차가 산 절벽에 다다라도 반드시 길이 있다(車到山前 必有路)'는 말씀은 지금도 내 책상 머리에 적혀 있다.

북경에서 석사 논문 마무리를 하던 중, 집안일로 잠시 귀국하게 되었다. 아이들의 우윳값도 쩔쩔매던 그즈음, 우연히 경력직 공무원 모집 공고를 보았다. 필기시험이 통과되고 면접까지 치른 후, 논문 정리를 위해 중국으로 돌아갔다. 북경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한 최종 합격자 명단에서 내 이름 석자를 꿈인 양 발견하고 은사님께 전화를 드렸다. 교수님이 더 감격스러워했다. 극심한 불황에 한국에서 기존 직장인도 자리를 잃는 마당에 마흔을 넘긴 가장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것은 하늘의 보살핌이라며.

며칠 후, 대륙에서 한의학에 바친 젊음과 열정의 시간을 접고 고국으로 돌아오던 날을 잊을 수 없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팔월, 짐보따리를 끌고 은사님 댁으로 인사를 올리러 갔다. 떠나는 제자 앞에 달리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유학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나는 나대로의 상념에 젖은 채 말을 잃었는데, 그 순간에도 선생님의 섬세한 손길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여러 개로 꾸린 짐보따리가 허술하게 보였던지 커다란 가방을 꺼내 짐을 일일이 정리해 준 뒤 내가 차를 타는 곳까지 따라 나왔다.

고향집을 다녀올 때면 늘 어머니는 크고 작은 짐보따리를 이고 신작로까지 바래다 주었다. 내가 올라 탄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던 중풍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이번에는 택시가 출발하자 "이군, 꼭 성공해야 돼(老李, 你一定成功)!"라고 외치며 은사님이 손을 흔들고 계셨다.

순간 내 한의학 유학의 처음과 끝을 보았다. 어머니의 상실에서 출발하여 나는 골짝을 헤매는 목마른 사슴처럼 낯선 땅에 한의학을 공부하러 왔다. 대륙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내가 보았던 어머니가 눈앞에 일렁이어 온다. 출장길의 눈 내리던 북경의 밤을 포근하도록 손수 짠 털스웨터를 덧입혀준 어머니, 한복 치마저고리를 건네 단아할 북경의 어머니를 언제고 한번 뵙고 와야겠다.

너무 깨끗이 닦으면 되레 탈나는 항문

진료실에서

저마다 사는 모습은 다르겠지만 잘 먹고 잘 자고 화장실도 원만하게 갈 수 있어야 남들 다 하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남부럽지 않게 이루어진다. 식사 시간을 지키고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비나 설사가 있으면 먹기가 두려워지고 화장실이 무서워진다. 배변 조절이 평온한 일상생활 영위에 아주 중요한 이유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다. 항문가려움증이다. 평소 지저분한 것을 유달리 싫어하거나 티끌 하나조차 눈에 거슬리는 성미가 지나쳐 항문까지도 깨끗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아 항문을 열심히 세정하는 정도를 넘어, 죄 없는 화장지에게 화풀이를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탈이 났음을 알리는 '빨간 신호등'이 켜진다. 처음에는 좀 따가운 듯하다가 언제부터인지 항문이 가렵고 스멀거려진다. 요충인가 싶어 약국에서 기생충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항문이 시원해질까 싶어 소금물에 푹 담갔다가 경을 치기도 한다. 대장의 탈이 의심되어 대장내시경도 해보고 치질인가 싶어 연고도 발라 봐도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화장지로 성에 찰 때까지 과다하게 뒤처리를 하다보면 연약한 항문점막 조직이 손상돼 다시 재생되는 과정에서 가려움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깨끗함이 더러움보다야 백배 낫지만 예외도 있다. 항문은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 흡수 후 남은 찌꺼기를 냄새 나는 변으로 체외로 배설하는 곳이니 다른 신체 부위와 달리 지저분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손이나 얼굴처럼 관리하려고 하니 탈이 나게 마련이다. 깔끔떠는 성격이나 결벽증 또는 강박적인 성격인 경우 항문을 내버려두질 않는다. 그렇다 해도 적당히 타협하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고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도 되는데, 내놓고 의논할 화제거리도 아니고 의논할 상대는 더욱 없다.

조금만 심적 여유를 가지면 만족스럽게 세정할 방법은 있다. 다만 신체 중 항상 노출되는 얼굴이나 손처럼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배변 후 애꿎은 화장지에게 화풀이하지 말고 적당히 뒤처리하고 바로 샤워하기를 권한다. 샤워기를 이용해 흐르는 물로 비누나 세정제와 함께 가볍게 씻어내면 항문 점막 조직의 손상 없이 세정할 수 있다. 배뇨 시기는 조절하기 어려워도 배변 시기는 충분히 조절할 수 있으니 쫓기는 출근 전 보다는 귀가 후 화장실을 가는 것이 심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로울 것이다. 집 수리나 인테리어 작업은 하수도 공사부터 먼저 한다고 한다. 전쟁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퇴로부터 먼저 준비하지 않는가. 청결문제에 관해서 심적 여유를 가지자. 화장실이 편해야 식탁이 즐거워진다. 장동한 장동한학문외과원장

독자의 소리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와 지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 편집실 ☎607-4077, 1225honey@korea.kr

사회복무요원으로 보낸 후회 없는 21개월

나는 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얼마전 제대했다. 군 복무를 대신해 21개월, 공공기관이나 복지가 필요한 곳에서 국민과 행정기관원을 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은 2014년부터 명칭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공익(공익근무요원)이란 말이 더 친숙한 것 같다.

대한민국 남성으로 같은 기간 복무를 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다. 과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n번방' 사건 뿐만 아니라 일부 사회복무요원의 일탈과 복무기간 불성실한 태도들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이미지가 굳어진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나 또한 완벽하게 사회에 헌신하며 이바지한 모습을 늘 보였던 건 아니었다. 함께 근무했던 공무원들에게 칭찬을 들었지만, 가끔은 불성실한 태도로 일을 해 '그때 좀 더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며 반성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내가 알지 못한 많은 것을 보고 느낀 것은 삶의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에 대해 매우 감명 받았다. 차상위, 수급자, 기타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어르신들을 전부 '시스템'으로 찾아내 필요한 맞춤 복지를 주선하고 사후관리까지 도맡은 행정복지센터는 그야말로 복지의 최전선 같았다. 기부 물품 배분부터 선거준비와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예방접종관리, 주민자치회, 새마을활동, 방역까지 복무기간에 할 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친구들에게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면 "그런 일들까지 다하면 너무 피곤하겠는 걸"이라는 말이 돌아온다. 그럴 때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그럴 바에야 내가 하는 게 나아"라고 대답하곤 했다. '복지 최전방'에서 복무하고 있을 후배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라고 말을 들려주고 싶다. 내 얼굴이 다른 복무요원의 얼굴이며,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소속된 기관을 대표하며 그 결과는 결국 본인한테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는 말처럼 냉소적 마음을 버리고, 대한민국의 남성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

유성진(전 남구청 사회복무요원)

이웃돕기 성금 명단

△김영자 1만원 △눈뜨랑안경 5천원 △문현하늘채 3만원 △부산식품 2만원 △서정무(현대2차아파트) 50만원 △과일장터 1만원 △김용선 5만원 △연대사 10만원 △문현한양입주자대표회의 40만원 △남도입주자 10만원 △9통주민일동 20만5천원 △향화사 10만원 △18통 주민일동 6만5천원 △11통 주민일동 30만1천원 △정호베스트빌 주민일동 5만원 △하림하이츠빌라 B동 주민일동 3만원 △도서영 5만원 △토방빌라 3만원 △문현탕 3만원 △삼원아파트 10만원 △대연유치원 5만원 △4통 주민 13만5천원 △(주)동광소방 5만원 △이창화 5만원 △(주)조은건설산업 2백만원 △(주)거암디엔시 2백만원 △조미자 1만원 △김옥권 1만원 △김명옥 1만원 △삼부맨션 주민일동 5만원 △청암맨션 주민일동 5만원 △박윤희 15만원 △글로벌빌라트 B동 3만원 △휴림힐A동 주민일동 5만원 △박종표 10만원 △정재욱 5만원 △안소현 5만원 △17통 10만원 △12통 5만원 △19통 주민일동 7만1천1백원 △(주)오오씨아이 김치10kg 50박스 140만원 △더블랙엘이디쌀(10kg) 100포 250만원

▣ 문현2동
△문현2동 4통 주민일동 18만원 △문현2동 8통 주민일동 62만7천원 △문해영 5만원 △문현2동 15통 주민일동 11만원 △한우박사 15만3천원 △리잘커피 15만3천원 △김봉식 20만원 △문현2동 13통 주민일동 10만3천원 △성동아파트 주민일동 10만원 △문현2동 1통 주민일동 10만원 △골든뱰류빌주민일동 10만원 △10통 주민일동 10만원 △문현뱀양헤우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0만원 △김유창 15만원 △11통 주민일동 16만원 △5통 주민일동 30만원 △문현2동새마을부녀회 김치4kg 170박스 280만1천6백원 △박서진(하나울주간보호센터) 김치(4kg) 50박스 82만4천원 △다솜의원 쌀(10kg) 36포 1백9만6천8백원 △문현2동 주민자치위원회 커피, 두유, 휴지 9세트 49만4천4백원

▣ 문현3동
△합동타이어 90만원 △문현3동 새마을부녀회 10만원 △현대자동차 문현점 심재천 20만원 △오달연 1만원 △김병국 10만원 △천운숯불갈비 이동언 5만원 △장정아 1만원 △문현동삼성아파트입주민 140만원 △고경삼 3만원 △대도라이프타운 입주자대표회의 35만원 △동아화원(이현용) 5만원 △손영기(리치빌) 5만원 △대지빌라주민일동 2만원 △금강빌라 주민일동 1만원 △타미나이불(박용순) 3만원 △천지식육점 1만원 △대지빌라 A동 주민일동 2만원 △김수용 3만원 △천지목욕탕(장경진) 5만원 △대원맨션 주민일동 4만원 △양회임 1만원 △박미성 1만원 △양창기 3만원 △하길웅 5만원 △최차선 2만원 △김두리 3만원 △신준호 3만원 △4통 주민일동 12만원 △문현3동 새마을금고 5만원 △문현한화꿈에그린아파트 입자주대표회의 40만원 △정철어학원 문현캠퍼스(장진영) 5만원 △김종필 3만원 △배양수 5만원 △방이혁 3만원 △변현정 3만원 △박순연 3만원 △서미자 3만원 △김홍덕 3만원 △김창영 7만원 △티지조경주식회사(박태근) 5만원 △대도상사(차희준) 10만원 △대도상사(김순화)2만원 △와이즈남부산교육(김경미) 2만원 △토박이숯불 1만원 △정헤어 1만원 △이기식 1만원 △단추집 이창기 2만원 △태양철물 박성락 2만원 △장지찬 1만원 △이종호 1만원 △이임대 4천원 △김철훈 3천원 △금호천지아파트 주민일동 5만원 △심근우 15만원 △김수복 2만원 △한백현대아파트 주민일동 15만원 △대성아파트A,B,C동 주민일동 3만5천원 △대성아파트D,E동 주민일동 3만원 △문현주택 주민일동 3만원 △12통4반 주민일동 2만5천원 △2통2반 김기수 1만원 △2통1반 오말남 1만원 △2통5반 노명자 1만원 △2통6반 박경애 1만원 △2통7반 한성주택 주민일동 2만원

▣ 문현4동
△화평교회 20만원 △대진아파트 주민일동 10만원 △대진상가아파트 주민일동 2만원 △문현4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각급단체 165만원 △문현4동 3통 주민일동 5만원 △대성주택 주민일동 15만원 △우성아파트 주민일동 10만원 △남문빌라 주민일동 10만원 △우성상가맨션 주민일동 3만원 △우성대현맨션 주민일동 3만원 △세종그랑시아 주민일동 40만원 △삼한사랑채 주민일동 10만원 △문현4동 새마을금고 5만원 △문현상가아파트 주민일동 5만원 △부산시민걷기동호회 50만원 △문현4동 새마을금고 30만원 △문현아파트 주민일동 7만원 △동양아파트 주민일동 10만원 △세영맨션 주민일동 15만원 △보광맨션 주민 일동 5만원 △칠성식당 5만원 △양산식당 1만원 △문현주유소 2만원 △문현4동 10통 주민일동 4만원 △백향빌라 주민일동 7만원 △권상효 3만5천원 △전덕식 1만원 △전남희 1만원 △김준연 1만원 △박남진 1만원 △이은봉 1만원 △임종채 2만원 △박을용 1만원 △남부중앙새마을금고 5만원 △13통 주민일동 13만4천원 △만리장성 3만원 △삼광수지 30만원 △건일중량 5만원 △범일마트 3만원 △한빛어린이집 10만원 △서경연 10만원 △김제화 5만원 △태평양유통 5만원 △경북철물 3만원 △큰빛어린이집 5만원 △말양슈퍼 1만원 △해운파크맨션 입주민일동 15만원 △기성사 2만원 △대림시티프라자 입주민일동 55만원 △벽산한성기린아파트 입주민일동 33만6천원 △대암아파트 입주민일동 5만원 △6통 주민일동 5만원 △무학프라자 입주민일동 13만원 △4통주민일동 5만9천원 △대양고등학교 김치 50박스 123만6천원

감만동 나환자 마을의 비밀 품은 비석

유현의 부산 유물이야기

1970년대 후반, 필자가 초등학교 시절 남구의 못골동산이나 부산박물관, UN기념공원을 소풍 장소로 자주 찾았다. 그때 몇몇 친구들로부터 "너거들 저기 감만동 고개로 넘어가면 문디한테 잡혀 간다이가"라는 말을 들었다. 어린 마음에 조금 두렵고 궁금했는데 세월이 한참 흘러서야 과거 감만동 고개 너머에 용호동 나환자 마을과는 별개의 거대한 나환자 집단부락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라는 열쇠가 필요하다. 동구 일신기독병원 뒤뜰에 숨어있는 '부산 나병원 기념비(국가문화재 제781호, 2020년 지정)'는 감만동과 용호동의 사라진 나환자 마을의 비밀을 알려준다. 비석의 원래 명칭인 '대영나병자구료회기념비(大英癩病者救療會紀念碑)'는 영국 나병환자 구료단체에 소속된 부산 나병원을 기념한다는 의미이다. 비석 측면에는 개항기 의료선교사로 잘 알려진 심익순(Smith)과 어을빈(Irvin), 사목사(Sidebotham)의 공로로 부산 나병원이 1909년에 창립되었으며, 부산 나환자들의 아버지로 불렸던 매견시(호주 이름 제임스 노블 맥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 비석은 호주 선교사 매견시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나환자들이 직접 돌에 새겨 1930년에 부산 나병원 뜰에 세운 것이다.

그렇다면 부산 나병원은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나라 최초의 나환자 치료소'인 부산 나병원은 1909년 감만동 산자락에 건립되었다. 이듬해 1910년 '상애원(相愛院)'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개원하고 1912년 매견시가 관리자로 부임했다. 감만동에 나병원이 세워진 이유는 북으로 언덕을 등지고 있어서 북풍을 막아주고, 남으로 바다를 접하고 있어서 나균 확산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나환자들이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상애원의 최초 위치는 현재 감만2동 새마을금고 주변으로 추정된다. 이후 병원이 확장하면서 나환자를 600명 이상 수용했다. 감만2동 옛 부산외대 입구에서 대연4동 푸르지오아파트 입구까지 이르는 대규모 나환자 집단촌락이 형성되었고 부지 면적은 2만6,000평에 달했다. 촌락에 들어오지 못한 환자들은 문현동 지게골(호곡)에 모여 마을을 형성해 생활했다. 1938년 일제는 매견시를 간첩 혐의로 추방하고, 1941년 상애원 부지를 군사 요새화했다. 이때 소록도 갱생원으로 강제 이주를 거부한 일부 나환자들이 오륙도 인근으로 숨어들어 마을을 형성한 것이 용호농장의 시작이 되었다.

'부산 나병원 기념비'는 처음 감만동에서 용호동으로 다시 기장군 정관을 떠돌다가 매견시의 두 딸이 설립한 일신기독병원에 2016년 자리를 잡았다. 높이 113㎝ 비석에는 파란 눈의 선교사가 남긴 나환자에 대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나환자의 가슴 아픈 디아스포라가 담겨있다.

부산박물관 교육홍보팀장

산따라 물따라 2월 산행을 떠나요

산악회	산행일	산행장소	연락처
원뿌리산악회	2월 19일(일)	거제 가라산(시산제)	010-4564-7769
우암산악회	2월 26일(일)	광양 매화마을	010-6578-0488
우일산악회	2월 5일(일)	거창 우두산	010-3557-2847
21세기산악회	2월 12일(일)	남해 금산	010-7563-1943
산이좋아산악회	2월 26일(일)	영동 민주지산	010-9329-3560

※ 산악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산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48452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77 유료광고 접수 4071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m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매품>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